



2007년 7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정.

#10년간 백두대간 9정맥 4200Km 중주
 “불교가 자연이고 자연이 불교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산의 자비로운 모습에 반해 산에 오릅니다. 산을 통해 불교의 자비심을 배우게 되더군요.”
 대학교재를 주로 출판하는 보성각 대표이자 산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일순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본업인 도서출판보다는 산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산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염일순 대표는 1971년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산을 다녔다. 그가 접한 산만해도 천여 개가 넘는다. 국내산은 물론이고 킬리만자로, 낭가파르BAT, 일본의 북알프스 등 해외의 높은 산들도 많이 올랐다. 지금은 백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히말라얀 클럽’ 회원이다.
 올해 예순 셋인 염일순 대표가 지난 시월에 국내 산악인들 사이에 화제의 인물로 등장하였다. 9

년 6개월에 걸쳐 백두대간과 구정맥(九正脈)을 단독 중주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4월에 시작하여 2008년 10월에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백두대간과 구정맥을 합친 도상(圖上)거리는 2,758km이지만, 실제 중주거리는 약 4,200km이다.
 십년의 세월이 걸쳐서 혼자서 중주하였기에 염일순 대표의 산행은 더욱 돋보인다. 이를 두고 산악인들은 “강인한 체력과, 독도(讀圖) 능력과 고독을 이겨낸 끈질긴 정신력 등 3위 일체가 되어 이룩한 금자탑으로서 등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칭송하였다.

#우리 산줄기 찾기 운동에 앞장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를 말한다. 200년 전,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인 신경준에 의해 작성된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간(백두대간)과 하나의 정간(장백정간)과 13정맥의 산줄기가 있다. 그런데 일제(日帝)에 의해 정맥 개념은 산맥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인 산맥개념으로 우리의 국토지도가 작성되고 있다. 염일순 대표는 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산줄기 찾기 운동을 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제의 잔재인 산맥개념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리·덕유·속리·태백·함백·두타·청옥·오대·설악산 등의 중후한 산군은 백두대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를 두고 소백산맥이라고 지칭했으니 우리의 국토를 좁은 안목으로 본 것이지요.”

산행을 잘 하기 위한 비결을 물었더니 첫째는 산행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두대간과 구정맥 중주를 위해서 산의 지형을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백두대간을 중주할 때는 코펠과 텐트, 침낭 등 매년 20킬로그램이 넘는 배낭을 메고 하루 10-12시간씩 산행을 하면서 ‘1시간 30분 걸고 5분을 쉬다’는 원칙을 정했어요. 나침반·고도계·5만 분의 1지도는 필수적인 것으로 산행 중에도 나침반을 항상 목에 걸고 고도계와 함께 수시로 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해칠 것 없으면 짐승도 안 덤벼
 백두대간을 중주하면서 응복산 약수산 구간에서 수백 마리의 멧돼지가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

이었고, 소백 국방봉에서 야영할 때 강풍이 불어 텐트와 함께 나가떨어지는 등 잊을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한다. 또 구정맥을 중주하면서는 뱀이 우글거리는 뱀밭을 지나게 되었고, 사나운 들개를 만나기도 하였다. 무섭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뱀이나 들개를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내가 전혀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보이면 그들 역시 해치지 않아요. 아주 사나운 사냥개 2마리를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진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면서 옆으로 슬쩍 비켜났더니 그들도 그냥 지나가더군요. 깊은 산중 절에는 짐승들이 범접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종소리나 목탁, 염불소리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백두대간 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산과 물은 역사·문화·신앙 등 우리 생활의 모태인데 곳곳의 정맥들이 골짜기 건설, 군사시설, 도시화과정에서 끊어지고 사라져 가고 있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 덧붙였다.

“이백 년 전에 작성된 산경표의 백두대간과 구정맥은 지금 70-80%정도 보존되고 있으며, 정맥의 일부는 아예 없어진 곳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의 우리 산줄기를 인정하여 현대판 산경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백두대간의 힘찬 줄기는 울트림치는 우리 한반도의 기상 그대로이며 낙동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은 동쪽, 서쪽, 남쪽에서 우리 한반도를 편안하게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그리고 그 맥은 장군의 기상 그 자체입니다. 한남, 한북, 금남, 금북정맥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꽃을 피우는 형상으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 강하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시대의 ‘산경표’ 만들어야
 염일순 대표는 틀이 날 때마다 <한아실경> 사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열반하신 원담 스님으로부터 “사람 사람마다 진불(眞佛)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멀리서 찾아 말라”는 가르침을 새기면서 살고 있다. “권력도 명예도 다 무상한 것.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만이 진실한 것이며,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염일순 대표의 맑은 산을 통해 체득한 것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산에서 진짜 부처를 보고 참된 길을 발견하죠”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기력이 저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8cm 158,000원
→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덕과 복판을 마음속으로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격외선·열침·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열복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신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영애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